

동아시아 관광 연구의 확장성을 엿보다

강명구·정근식 엮음, 『아시아 투어리즘: 동아시아여행과 지리적 상상』(진인진, 2019)을 읽고

박충환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I. 들어가며

현대적 의미의 관광은 그 자체의 장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차원들과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Stronza, 2001: 261). 다시 말해 관광은 무의미하고 메마른 일상으로부터의 탈주를 꿈꾸는 현대인의 욕망과 진정성 추구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과 장소를 관통하는 “사람, 자본, 이미지, 문화의 흐름을 수반”(Meethan, 2001: 4)하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과 소비의 과정으로서 현대 세계의 문화적 위계, 정치적 권력관계,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에 관한 연구는 글로벌시대 인류의 사회적 삶을 스펙트럼처럼 펼쳐놓는 의미심장한 창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은 오랫동안 그 표피적 이미지의 ‘천박성’과 ‘상업성’으로 인해 현대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진지한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인 지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최근까지 한국의 학계도 주로 관광학과 관광경영학 진영에서 산업으로서의 관광을 경제성장과 발달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접근하는 실용적·응용적 성격의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을 경영학적 관점이나 개발론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자 시도한 『아시아 투어리즘: 동아시아여행과 지리적 상상』(이하

『아시아 투어리즘』의 출간은 문화로서의 관광을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로 연구해 온 인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 투어리즘』은 동아시아 관광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한국, 중국, 일본 투어리즘의 역사성, 장소성, 진정성의 사회문화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는 총 9개의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편집자인 강명구와 정근식은 개별 연구들을 다소 느슨하지만 하나로 묶는 공통 논제를 통해 다시 두 개의 부로 나누고 있다. 1부는 관광객의 사회문화적 배경, 미디어, 관광객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 관광을 탐구하는 4편의 논문, 2부는 탈냉전, 장소성, 문화유산이라는 맥락에서 관광 대상의 진정성이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조명하는 5편의 사례연구로 구성된다. 『아시아 투어리즘』은 관광학과 관광경영학의 성장·발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관광을 중층적이고 다의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본서는 또한 기존 관광학계의 연구가 주로 정형화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해 있었던 데 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적절하게 융합해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학술서이다. 이 리뷰에서는 『아시아 투어리즘』의 이론적·실천적·방법론적 의의를 상수로 두고, 본서에 실린 9편의 연구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조심스럽게 평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의 보다 진전된 연구를 위한 지적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장별 리뷰와 비평

본서의 1부는 “동아시아 관광객의 유형과 시선, 미디어를 통해 본 해외여행”이라는 제목하에 4편의 연구논문을 묶고 있다. 1장 “한국에 대한 요우커들의 시선과 여행 체험”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인 요우커들이 한국이라는 관광목적지를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경험하는지를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해서 수집한 실증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조명한다. 필자인 강명구와 남은영은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앞서 약 7쪽에 가까운 지면을 할애해

서 그동안 학계에서 관광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이론적·개념적 논쟁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구축하고 있다. 필자들은 기존 관광 연구에서 쟁점이 되어 온 ‘진정성’ 개념에 관한 이론적 논쟁에 개입하고, 어리(John Urry)가 개념화한 ‘관광객의 시선’ 그리고 ‘지리적 상상’에 관한 개념적 논의를 통해 관광객의 경험과 관광의 사회경제적 조건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연동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필자들의 이러한 이론적·개념적 논의는 이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본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 연구를 1장에 배치한 편집자들의 편집력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필자들은 이러한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배경으로 먼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3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의 양적 분석을 통해 중국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목적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양상을 보여 주는지를 살펴본다. 그다음 요우커들이 중국의 주요 여행 사이트들에 올린 인터넷 여행후기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세 유형의 시선, 즉 애국적/발전주의적 시선, 소비주의/코스모폴리탄 시선, 해석적/자기성찰적 시선이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은 호스트인 한국인들의 편견과 기존 연구에서 드러나는 냉소적 평가와 달리, 중국 관광객들의 시선과 관광에 대한 의미부여 방식에 ‘피상적이고 천박한’ 소비주의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자기성찰과 진정성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연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면적 경험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관광 연구 분야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피상적인 관광’과 ‘자기성찰적 여행’이라는 이분법적 의미의 위계를 허물어트리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국 관광객들의 경험세계를 유의미하게 규정하는 개혁개방 후 중국 사회의 급변하는 물질적·상징적 질서와 문화적 위계에 대한 논의에 중국 관광객들의 세 가지 시선을 맥락화시켜 해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개혁개방 후 사회주의가 더 이상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없게 되자 애국주의와 중화민족주의를 고양하는 선전과 교육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중

국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지역 간, 계층 간, 도농 간 불평등으로 몹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최근 중국사회의 맥락은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들의 시선과 관광경험을 의미심장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1장은 현 수준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연구이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세 가지 시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최근 중국사회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적절하게 더해졌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논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장 “동상이몽?: 중국인 관광객을 향한 일본 미디어의 시선과 재현”에서 황성빈은 신문, 방송, 인터넷 미디어의 여론 공간에서 생성·유통되고 있는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바운드 중국인 관광객을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시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양상을 보여 주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속내를 뜻하는 ‘혼네(本音)’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뜻하는 ‘다테마에(建前)’라는 두 개의 경향적 범주로 일본의 다양한 미디어를 구분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일본인의 시선과 재현이 보여 주는 양면성과 이율배반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관광 호스트 사회가 인바운드 관광객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타자화하는 과정이고, 이 타자화 과정이 호스트 사회 구성원들의 국민국가적 정체성 형성과 재생산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다.

하지만 미디어 담론에 대한 분석이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 어쩌면 상식적 추론을 통해서도 포착될 수 있는 당연한 귀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체계적인 인터뷰나 참여관찰 등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활용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인용문의 한국어 번역에서 보이는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가독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 장인 양위청의 “누적적 인과이론의 관점에서 본 국제관광 공간의 발생”은 중국의 인바운드 국제관광 추세를 누적적 인과이론이라는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최근 중국에서 선진국 출신 관광객이 감소하고 오히려 개발도상국 출신 관광객은 증가하는 비전형적인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양위청

은 다양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중 상당한 부분이 관광이나 여행이라는 단일한 비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비즈니스 혹은 장기적 이주 등 다중적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 관광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 관광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개발도상국의 입국자는 경제 조건의 한계로 하나에만 제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목적을 실현해 중국 입국 비용을 절감하고, 최대 수익을 올리고자” 하고 “선진국의 입국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압력이 없기에 입국 목적이 좀 더 단순하다”(121-122쪽)고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필자는 선진국 관광객에 비해 개발도상국 관광객의 관광행위가 누적적 인과효과를 통해 중국 내 사회자본과 해당 국가의 중국 입국 이민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 출신 관광객의 관광 행위와 이민 사이에 존재하는 누적적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2장의 연구가 노정하는 한계와 유사하게 세밀하게 구조화된 설문조사와 통계학적 분석만으로 가설들을 입증하고 있어서, 연구의 출발점으로 세운 가설과 그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 다소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일견 매우 체계적이고 정치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 그러한 분석 없이 상식 수준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해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복잡한 통계학적 분석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예를 들어, 선진국 관광객들은 개발도상국 관광객들이 비해 자국에서 누리고 있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중국을 이민이나 이주 목적지로 설정할 유인이 크게 없을 것이라는 추정이 상식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부의 마지막 장인 4장은 중국 중산층의 해외관광과 소셜미디어에서의 계층적 자아 구축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필자인 저우치옌은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웨이보에 대한 ‘가상민족지(virtual ethnography)’적 접근을 통해 한편으로는 관광과 계층의 관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과 소셜미디어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가상민족지는 “인터넷 가상 환경을 주요한 연구의 배경과 환경으로 삼고, 인터넷의 표현 플랫폼과 상호작용 수단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과 이와 관련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해석하는 방법”(136쪽)으로 연구 대상 모집단이 너무 크고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설문조사, 인터뷰, 참여관찰 등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필자는 웨이보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과 여행후기에 대한 광범위한 질적 분석을 통해 중국 중산층 관광객이 웨이보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해외여행 경험 자체보다는 중산층으로서의 자아정체성과 소비취향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이를 통해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중화시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를 견인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둘째, 중국 중산층 해외 관광객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지적 소양을 통해 표 현되는 윤리의식이 중국사회에 건강한 시민의식과 생태주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과시적 소비로 인해 중국의 일반 대중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평등 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에 입각해서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은 중국 사회의 안정과 소비의 견인 역할”을 함으로써 개혁개방 후 중국 정치경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 연구는 본서에 실린 여타 논문과 달리 가상공간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돋보이고 중국 사회 내에서 중산층 관광이 갖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엿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웨이보에서 인용한 글들이 여성들에 의해 작성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산층 관광의 젠더적 차원에 대한 분석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분석한 웨이보 포스팅의 총 수와 거기에서 나타나는 개괄적인 통계학적 분포를 양적 지표로 제시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서의 2부는 “진정성의 구성과 관광의 재발견: 탈냉전, 장소성, 문화유산이 관광에 갖는 함의”라는 제하에 5편의 연구논문을 묶고 있다. 5장 “동아시아에서의 탈냉전과 전장 관광의 지속가능성”에서 정근식과 오준방은 타이완 진면에서 진화해 온 전장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탈냉전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 형성되는 메커니즘과 역사적 경과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타이완과 중국의 분단 및 군사적 대치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진면의 전장관광이 적대적인 두 정치체제의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장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 문화관광의 요소들이 편입되어 복합관광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례를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탈냉전 다극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라는 맥락에서 엿볼 수 있고, 관광이 적대적인 두 정치집단 구성원들이 상호교류하는 장으로 기능하여 화해와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김성민의 연구인 6장 “서울의 ‘재구조화’와 일본인 관광: 강남개발을 중심으로”는 장소성의 역사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서울의 장소성이 재구조화되는 과정과 맞물린 일본인 관광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른바 ‘기생관광’으로 대표되던 일본인의 한국관광이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서울의 글로벌 도시화로 인해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가 구축되면서 양적·질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짧은 연구는 서울이라는 공간의 재구성과 장소성의 재구축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 엄밀하게 관광에 관한 연구라기보다 공간과 장소성에 관한 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광과 장소성의 연동관계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갖는 중층적 함의를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해 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시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7장 “오키나와의 성지와 종교적인 것의 관광적 재발견”은 오키나와 본도 남부에 위치한 성지 세이화우타키가 관광목적지로 변용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서, 관광을 통한 전통의 재발견과 그 과정을 규정하는 시선과 힘들의 교차, 어긋남, 긴장, 경합을 흥미롭게 보여 주고 있다. 과거 류큐왕국으로 독립해 있던 오키나와는 근대에 접어들어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중력장 속으로 편입되면서 일본 본토에 대한 지역 정체성 유지가 중요한 지역적 이슈로 지속되어 왔다. 이 연구는 바로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그 중력장에 포섭된 한 지역의 지역 정체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가 세이화우타키의 관광목적지화 과정을 관통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긴장관계로 인해 관광 호스트인 오키나와인 혹은 ‘야에야마’ 사람들의 관광을 통한 자기 재현과 오키나

와를 방문한 관광객의 시선이 어긋나고 있는 현장을 흥미롭게 포착한다. 즉 오키나와를 방문한 “대만인 관광객은 ‘오키나와다운 것’ 혹은 ‘야에야마적’인 것을 잘은 모르고, 애초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많지 않다. 한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야에야마 사람들은 관광객을 위해 ‘오키나와적’인 것을 준비하고, 이를 관광객들이 수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256쪽) 사실을 통해 장소성과 그 장소의 진정성을 둘러싼 관광 호스트와 관광객의 엇갈리는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순한 관광에 관한 논의를 넘어 지역, 국민국가, 글로벌 스케일의 담론과 실천들이 중층적·복합적으로 교차하고 경합하는 장소성과 정체성 정치의 경험적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8장 “가짜가 만들어낸 진짜, 관광문화에서 진정성의 다양화: 신고촌 그리스도의 무덤 사례를 중심으로”는 독특한 형태의 진정성 구축 사례인 일본 아오모리현 산노해군 신고촌에 있는 가짜 ‘그리스도 무덤’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의 장에서 진정성이 구성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가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연구다. 이 연구에서 오카모토 료스케는 신고촌의 ‘그리스도 무덤’이 명백한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목적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진정성을 획득하게 되는 매우 특이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관광의 장에서 진정성이 반드시 객관성과 팩트에 입각해서 구축되지 않고 가짜와 발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료스케는 “신고촌에서 행해진 것은 바로 꾸며진 이야기에 근거한 일상공간의 성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무덤 사례는 지금 융성하고 있는 콘텐츠 투어리즘이며, 이벤트성 축제라는 현대 특유의 새로운 관광 대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294쪽)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례연구는 관광 대상의 진정성에 관한 논의에 매우 특이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9장 “‘진정성’ 구축과 복수성: 동아시아 균함도 사례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 외교적 분쟁의 대상이기도 한 균함도의 관광목적지화 사례를 통해 진정성의 객관적 차원과 구성적 차원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조명함으로써 “관광 연구에서는 진정성과 비진정성, 즉 진짜/가짜의 경계가 반드시 이항대립적이지 않고 애매하며 유동적이라는”(298쪽) 사실을 논증한다. 균함도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의 구성자산 중 하나인 ‘하시마 탄

광 흔적”(299쪽)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광지화는 그 시작 단계부터 군함도의 의미 해석을 둘러싼 한일 간의 첨예한 논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필자인 기무라 시세이는 이러한 한일 간의 의견 차이를 “일본 측은 … 어디까지나 세계유산이라는 ‘문화’의 평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한국 측은 역사인식이라는 ‘정치’의 문제라고 주장”(306쪽)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정리하면서 이를 진정성의 구성적 차원과 실존적 차원에 대한 물이 해가 빛은 논쟁이라고 주장한다.

기무라 시세이는 군함도의 진정성이 한일 양국의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다카시마 석탄 자료관,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군함도 자료관,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 등 군함도 관련 4개의 기관에서 군함도가 공간적·시각적·담론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진정성이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구축되어 복수의 형태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다카시마 석탄 자료관은 “군함도를 탄광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다루고,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은 “전쟁 중 강제노동의 상징”으로 접근하며, 군함도 자료관은 “옛날 사람들이 생활해 온 삶의 터전”으로 재현하고,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은 “일종의 스펙터클”로 다룸으로써 군함도의 진정성을 맥락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318쪽). 필자는 이러한 분석에 입각해서 “관광 현장에서는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서로 다른 진정성이 그때마다 구축되고 실존적으로 체험되고 있다.”(319쪽)라고 결론 내린다.

지난 7월 22일 교도통신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하지마)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긴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이에는 “강한 유감” 등 강도 높은 표현(이윤정, 2021)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군함도의 진정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9장의 군함도 관광 사례연구는 관광의 장에서 진행되는 진정성 구축을 둘러싼 실천과 담론의 경합이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과 관광 연구가 이론적·실천적으로 의미심장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III. 나가며

이상에서 『아시아 투어리즘』에 실린 9편의 논문 하나하나를 간략하게 리뷰하며 그 의의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각각 설명력과 완성도 면에서 약간의 편차를 보이긴 하지만 9편의 논문 모두 향후 동아시아 관광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관광문화의 단면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관광문화를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9년 말 돌연 촉발된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인류의 삶 전반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전대미문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제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74%나 감소했다(UNWTO, 2021). 관광산업은 이렇게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큰 분야다. 하지만 탄력성이 큰 만큼 이 팬데믹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 가장 신속하게 회복될 분야이기도 하다. COVID-19가 종식되거나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된다면 관광은 다시 ‘21세기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즉시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과 변화를 이어 갈 것이다.

비록 COVID-19 사태로 잠시 발이 묶여 있지만 오늘날 인류의 대부분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관광객이자 여행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논거는 빈곤하다. 따라서 관광은 전공과 관심분야를 불문하고 글로벌 시대 인류의 사회적 삶을 진지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영역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이라는 렌즈를 통해 동아시아인들의 사회문화적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아시아 투어리즘』은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냉철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비전을 모색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지적 발판이 될 것이다.

일본의 문화비평가이자 철학자인 아즈마 히로키는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최근 저술에서 기존의 관광 연구가 “관광의 본질을 숙고하지 않는다”(2020: 30)고 비판하며, “관광객을 사유하는 것은 근대의 표준적인 인간관을 갱신해 새로운 인간관, 사회관, 정치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ibid: 65)라고 주장한다. 아

즈마의 이러한 파격적 주장은 관광 연구에 무한한 확장성이 있음을 뜻한다. 필자는 『아시아 투어리즘』을 리뷰하며 이러한 확장성의 희미한 실루엣을 엿보았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시선에서, 진면에서 진행되는 대만인 관광객과 본토출신 관광객의 조우에서, 오키나와의 성지를 순례자의 시선으로 답사하는 배낭여행객에서, 군함도의 진정성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에서, 포스트 COVID-19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형태의 노마드적 주체 — 아즈마 히로키는 이를 “우편적 다중”이라 부른다 — 의 탄생을 엿본다.

동아시아 관광의 활성화는 한중일 3국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관광객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이 관광의 장을 전혀 새로운 공론장으로 변환시켜 동아시아 평화 공존의 길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어 갈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본서의 말미에 “동아시아 투어리즘 연구에서 가장 도전적인 주제의 하나가 안보 및 평화와의 관계이다.”(330쪽)라고 밝힌 것처럼, 동아시아 관광에 관한 파격적 연구들이 동아시아인들의 공존 공영에 작은 지적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일천한 지식으로 감히 여러 학자의 노고가 담긴 연구를 비평했다. 이 리뷰로 인해 그들의 연구가 담고 있는 학술적·실천적 의의가 조금이라도 곡해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투고일: 2021년 7월 27일 |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0일

참고문헌

- 이윤정. 2021. “유네스코, ‘일본 군함도 왜곡’ 결정문 만장일치 채택.” 『경향신문』, 2021. 7. 22.
- 아즈마 히로키 저. 안천 역. 2020. 『관광객의 철학』. 리시울.
- Meethan, K. 2001. *Tourism in Global Society: Place, Culture, Consumption*. New York: Palgrave.
- Stronza, Amanda. 2001. “Anthropology of Tourism: Forging New Ground for Ecotourism and Other Alternativ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261-283.

UNWTO. 2021. "COVID-19 and Tourism 2020: A Year in Review." <https://www.unwto.org/covid-19-and-tourism-2020>(검색일: 2021. 3. 20.).